

# 신안 해상서 여객선 좌초 267명 전원 구조... 27명 부상

전남 신안 해상을 향해 중이던 대형 여객선이 좌초됐으나, 승객과 승무원 267명 전원이 구조됐다.

해경의 총력 구조로 여객선에서 간신히 빠져나와 육지에 다다른 승객들은 겨우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안도했다.

하마터면 또 대형참사가 될 뻔한 사고 원인에 대해 해경은 운항 과실 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격 조사가 나선다.

◆ 제주~목포 여객선, 무인도 위에 '탕'...267명 전원 구조

20일 목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면 죽도 인근 해상에서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이 승선해 있는 2만6000t급 여객선 퀴제누비아2호가 바위 위에 좌초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 17척과 연안구조정 4척, 항공기 1대, 서해특수구조대 등을 급파, 승선원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조치했다.

해경은 임산부, 노약자, 부상자 등 우선 순위에 따라 총 6차례로 나눠 구조 함정에 태운 뒤 목포 해경전용부두까지 이송했다. 배에 타고 있던 267명은 사고 접수 3시간 10분여 만인 오후 11시27분 모두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현재까지 임산부와 허리 환자 등 27명이 부상자로 잠정 분류됐다.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구조 뒤 목포해경 전용 부두로 차례로 옮겨진 승객들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임시 숙소 등지에서 휴식하고 있다. 다만 여객선 예인 등에 필요한 선원 20여명은 해경과 함께 선내에 남아있다.

◆ 간신히 도착한 목포...구조 승객들 '십년감수'



목포해경이 19일 오후 전남 목포시해경부두에서 좌초됐던 퀴제누비아2호 승객들을 구조해 옮기고 있다. /뉴스1

## 2만6000t 여객선, 무인도에 뱃머리 얹힌 채 기울어 구조 승객 6차례 걸쳐 목포 땅 디터 안도감에 털썩 '현재까진 운항 과실 추정' 해경, 다각적 원인 조사

해경 구조 함정을 타고 사고 해역을 빠져 나온 승객들은 목포해경 전용부두에 속속 도착하며 안도감을 숨기지 않았다.

제주 여행을 다녀오는 길이었던 승객들은 저마다 캐리어·가방을 챙겨 부두 잔교를 건너 부랴부랴 구급차 또는 이송 버스에 올라탔다.

육지에 발을 내딛자마자 승객들은 안도

의 한숨을 쉬거나 그제야 긴장감이 풀린 듯 자리에 잠시 주저앉기도 했다.

한 중년 여성은 "몸이 넘어질 정도로 충격이 컸다. '쿵' 소리가 난 후에는 정신이 없었다"라며 사고 당시를 회상했다.

70대 남성 승객은 "소리가 무지 컸다. 환자가 생겼는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안내 방송은 우왕좌왕하다 한참 뒤

에야 늦게 나왔다. 안내방송은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달라'라고만 할 뿐이었다"며 답답한 구조 과정에 울분을 토했다.

다른 승객들도 "세월호 사고가 떠올라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다", "하마터면 큰 일 날 뻔 했다. 몸은 괜찮다", "이제 걱정 마"라며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에게 전화로 안부를 전하기도 했다.

승객들은 이날 오전 0시35분까지 차례로 육지에 도착, 병원 이송 또는 임시 숙소로 옮겨질 예정이다. 중상자는 현재까지 없으며 부상자 27명을 제외한 승객들은 목포 시내 호텔 등지에 마련된 임시 숙소에 머문다. /뉴스1

## 자동항법기 의존 중 '휴대폰 검색'... 여객선 항해사 조타수 긴급체포

전남 신안군 해상 무인도에 대형 여객선이 좌초된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일등 항해사와 조타수를 긴급체포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0일 좌초 사고가 난 퀴제누비아2호 일등항해사 A(40대)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40대)를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죽도와 충돌하기 1600m 거리 전 여객선의 방향 변경(변침)을 해야 했지만, 변침을 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자동항법장치로 운항 중이었으며,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휴대전화로 뉴스를 검색하다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해경은 A씨가 휴대전화를 보느라 죽도

1600m 전 방향 변경 놓쳐... 충돌 직전야야 인식한 듯 '직접 지휘 의무' 어긴 채 조타실 비운 선장도 입건

약 100m 앞에서야 사고 위험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항법장치 목적지가 죽도로 설정돼 있었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A씨는 최초 진술에서는 '변침이 뒤늦게 됐다. (방향)타가 먹히지(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승객 구조 직후 1차 육안 감식을 마친 해경의 추궁 끝에 진술을 번복했다.

해경은 이들을 긴급체포해 휴대전화를 압수·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 사고 직전 휴대전화로 무엇을 하고 있었고, 사고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 등에 대해 조

사하기 위해서다.

해경은 또 60대 선장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C씨는 협수조에서 직접 지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당시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날 오후 1시 목포해양안전심판원·목포해양수산청 등과 함께 여객선 퀴제누비아2호 선체 조사·감식에 나선다. 선체는 이날 오전 5시44분께 목포시 삼학부두 여객선터미널에 자체 동력으로 입항·계류 중이다. 선적한 화물·차량 등은 대부분 반출까지 마쳤다.

합동조사단은 항로 이탈 경위 규명을 위해 항해 기록 장치, 자동 항법 장치, 사고 전후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회수해 분석한다. 사고 직전 선체 이상 또는 고장은 없었는지, 1차 압초(여) 충돌 사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두루 들여다본다.

앞서 전날 오후 8시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면 죽도 인근 해상에서 목포~제주 정기 운항 대형 여객선 퀴제누비아2호가 좌초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가 난 여객선은 항로를 이탈, 무인도인 '죽도'에 뱃머리가 얹혀진 채 15도 이상 기울었다.

좌초 사고로 여객선에 타고 있던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이 해경에 의해 차례로 구조, 육지에 이송됐다. 임산부를 비롯해 30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는 대다수가 퇴원하고 3명이 입원했다. 임산부 역시 검사를 받고 퇴원했다. /뉴스1

## 여객선 섬 돌진 3분간 '침묵'한 관제센터

“동시간대 여러 선박과 교신 필요” 해명했지만

사고 당시 해역 관제 대상 선박 5척 불과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대형 여객선이 무인도로 돌진해 좌초되기 전까지 해상교통관제센터가 사고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향을 틀어야 할 시점부터 좌초 전까지 3분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관제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윤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20일 목포해경에서 열린 퀴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 관련 브리핑 과정에 참여, 변침 이전까지 기록을 묻는 질문에 대해 “퀴제누비아2호는 사고 해역에 오기까지 시속 40~45km 속도로 정상 항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관제사도 사고 여객선이 정상 항해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으나 관제사는 동시간대 여러 선박을 본다. 평상시 관제 위험성이 있는 선박이 우선순위”라며 “좌초지점

과 항로가 상당히 가까운데다 여객선이 고속으로 항해중이어서 미처 관제사가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사고 해역 내 관제 대상 선박은 5척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객선에는 수백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지만, 관제사는 관제 위험성이 있는 선박으로 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향을 바꾸는 변침 지점에서 사고 위치까지 거리는 1600m로, 시간상 3분 정도 사고 위험성을 알릴 시간이 있었다.

김 센터장은 사고 해역이 ‘좁은수로’로 위험 지역이었던 만큼 관제사가 집중적으로 확인했어야 했으나 방만했던 것은 아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사고원인을 분석해서 실제 관제 책임 박을 본다. 평상시 관제 위험성이 있는 선박이 우선순위”라며 “좌초지점

## 광주상인회 “복합쇼핑몰 설립 전 상권 보호대책 마련해야”

“상권 공동화만 심화될 것...영향평가 재추진을”

‘더현대광주’ 착공으로 광주에 대형 복합쇼핑몰 건립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지역 중소상인단체들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대기업 대구모점포 광주상인대책위·광주상인연합회는 20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더현대광주 착공식이 민선 8기 업적 홍보의 장이 아니라 실효적 상권 보호 대책 수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대기업 복합쇼핑몰이 들어 서면 지역 소규모 등 기존 상권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업종별 상생협의체 참여 보장, 상생기금법 제정, 상권영향평가 실시 등 실질적 상생 방안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조례에 따른 상권영향평가 실시 요구만 수용했을 뿐 이해당사자와 대화조차 하지 않고 최소한의 협의 절차도 만들지 않았다”며 “그나마 진행된 상권영향평가 용역도 이미 정상 궤도를 벗어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가 발표한 상권영향평가 중간 용역보고서는 업종 평균 매출이 1.94% 증가하고,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의류업종의 매출도 2.38% 상승한다고

분석했다”며 “복합쇼핑몰이 들어선다고 시민들의 소비 여력이 갑자기 늘어날 리도 없고, 외지 소비자들만 광주를 찾아 별도로 구매할 이유도 없어 상가 공실률과 상권 공동화만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통대기업의 상생기금은 위로금·권리금 수준의 일회성 성금에 그쳤다”며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기금 조성을 위한 지역순환 상생기금법 제정과 폭넓은 상생협의체 구성을 요청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에게 가장 절박한 건 일자리를 잃지 않는 것”이라며 “강기정 광주시장은 실효성 있는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상권영향평가 용역을 재추진하고, 피해 업종이 참여하는 복합쇼핑몰 상생협의체를 다시 꾸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광주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는 ‘더현대광주’ 복합쇼핑몰이 2028년 개장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갔으며, 광천동 터미널 부지에는 신세계백화점 확장을 통한 ‘아트 앤 컬처 파크’, 어등산관광단지에는 신세계퍼파티의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가 조성된다.

/오권철 기자

#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